

# 십시일반의 자비행

## 새생각실천회 1백여회원 '인간방생불사' 매달 성남 자광원 방문 어르신 생일잔치

하루 한 숟가락의 쌀을 모아 한 달에 한번 노년을 의롭게 사는 할머니·할아버지의 생신상을 차려 드리는 모임이 있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99년 7월 '인간방생불사'를 목적으로 창립된 새생각실천회(지도법사 권경술) 회원들은 매일 삼시 세끼 밥을 짓기 전에 한 숟가락씩의 쌀을 따로 덜어내 모아 두었다가 매달 셋째주 금요일 성남 노인 요양시설 자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생신 축하 잔치를 열어 드리고 있다. 새생각실천회의 쌀 한 숟가락 모으기 자비행은 쌀 한 술

아고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마음을 낼 수 있는 작은 양이라는 데서 출발했다. 미처 쌀을 모으지 못한 회원들은 직접 미역국을 끓여오거나 케이크, 과일, 밀반찬을 마련해 오는 등 회원 한사람 한사람이 작은 정성을 보태 잔치상은 조촐하면서도 풍성하다.

생일잔치는 상만을 차리는데 그치지 않는다. 할머니·할아버지들이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원망을 삭히고 내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권경술 법사가 즉석 아나법식을 마련한다.

운영위원 대자은 보살은 "어르신들이 손을 움켜잡고 '나 같은

사람도 다 챙겨주는 사람이 있구려. 고맙소'라며 눈시울 붉히실 때면 오히려 그 분들에게 더 큰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새생각실천회의 이같은 자비행은 98년 12월 권경술 법사에게(금강경)을 배우던 20여 명의 불자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모임이 결성됐고, 2년째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는 일을 꾸준히 벌여오고 있다. 지금은 동참 회원이 1백여 명에 달한다.

15년 동안 창원기독교대학에서 노동법과 직업윤리를 강의하다가 불교교포를 위해 교수직을 그만 두고 새생각실천회를 이끌고 있는 권경술 법사는 "스스로 깨쳐 부처되는 일, 이웃을 깨쳐 부처되게 하는 일이 참다운 의미의 불사(佛事)"라며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중생지향적이라면 인간 방생을 먼저 눈을 떠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생각실천회는 인간방생불사를 위한 이론적 연구활동은 물론 그 실천을 위해 매월 첫째, 셋째주 목요일 '중·고교 선생님을 위한 불교강좌', 매주 수요일 '일반인을 위한 금강경 강의', '불교교양 강좌'를 무료로 열고 있다.



▷생일잔치상을 받은 자광원 어르신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 종교편향 백서 주요단체 배포

#### 종교편향대책위

종교편향대책위원회(위원장 원혜·상운스님)는 5월 27일 '종교편향백서'를 발간하여 교계단체 및 주요정부기관에 배포했다.

이번에 발간된 종교편향백서는 1998년 종교편향대책위 발족이후 약 2년간의 활동을 중심으로 방향 및 책발, 군, 교육, 공직, 국제, 이주종교, 방송·언론분야의 종교편향 사례와 법률자료, 종교편향대책위 설립이전 책발자료 등을 모아 발간한 것이다.

특히 백서내용에는 종교편향사례가 극심했던 군부대의 경우 역대 3명의 국방부장관이 사과공문을 보낸 것이 이채롭다.

원혜스님은 "종교간 조화를 통한 사회평화를 정착시키고 정부당국 및 공공기관의 올바른 정책수립과 집행의 일환으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백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정토긴급구조단원들이 구호장비 앞에서 '구조단 선서문'을 낭독하고 있다.

## 정토 긴급구조단 발족

### 3백명 규모...각종 재난 구호체계 구축

일과 수행의 공동체인 정토회(지도법사 법륜스님)는 신도와 자원봉사자 300명으로 구성된 재난 구호조직을 구성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정토회는 4일 서울 서초동 정토 불교회관에서 정토회 소속 스님과 신자들로 구성된 정토긴급구조단 발족식을 갖고 산불이나 홍수, 삼중항사와 같은 재해와 재난발생시 구조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정토회가 긴급구조단을 발족시킨 것은 산하단체인 한국JTS를 중심으로 인도 몽골 등 국제적 구호활동을 계속해 왔지만, 정작 국내에서 산불이나 홍수 등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적극 나서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시작했다.

발족식에서 구조단 단장에 선출된 정토법당 원장 유수스님은 "초기단계인 만큼 재난발생지역에서의 취사지원과 파손된 건물들을 보수하고 끊긴 도로를 잇는 활동부터 시작하면서 119 구조대 등 공식적인 구조대의 활동을 측면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토회는 신도와 대학생 및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300명 규모의 지역별(경기·강릉·강남·서초·강서·강북 등 8개 지역) 구조단을 결성하고 재난구호에 필요한 굴삭기, 1톤 트럭, 지프 등 차량 11대와 의료장비, 생활품 및 작업도구 등도 마련했다. 특히 간호사 5명, 안전관리사 1명, 응급처치사 1명, 영양사·조리사 각 1명, 수지침사 5명, 전문산악인 2명 등 전문인력도 구성했다.

긴급구조단은 앞으로 재난 지역에서 긴급 물품지원, 복구·의료·취사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 긴급구조단=(02)587-8993.

## 종교NGO 네트워크 추진

### 제가연대, 21일 포럼

불교바로세우기제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성)가 타종교 NGO들의 활동경험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 종교NGO네트워크도 추진한다.

제가연대는 오는 21일 오후 6시 30분 박문수 우리신학연구소 책임연구원(서강대 종교학과 강사)을 초청, '교단개혁을 위한 천주교 NGO의 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천주교 NGO단체인 우리신학연구소는 교회조직 및 운영에 관한 지속적인 대안제시 및 적용을 위한 활동, 교단내 성직자들(신부)에 대한 의식개혁 활동, 교단의 사회참여활동 등을 통해 성공적인 제가연대는 우리신학연구소의 경험이 건강한 교단(사찰)을 만드는 불교활동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가연대는 이번 포럼의 담판형식으로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정부는 5일 제28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환경의 날 행사를 갖고 새천년 국가 환경비전을 선포했다. 동강남 건설계획을 공식적으로 취소하기도 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성태 불국사 주지스님이 대통령포장을 수상하고, 법륜 불교환경교육원 원장스님이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 상임공동대표 자격으로 '민간환경선언문'을 낭독해 관심을 고쳤다.

그런데 이날 불교환경교육원의 주도아래 작성·발표된 '민간환경선언 2000'의 문안은 정부 비판적인 문구를 삭제해 달라는 당국의 압력 때문에 수 차례의 우여곡절 끝에 작성되었다는 후문이다. 역대 정권중 가장 민주

적이라는 국민의 정부가 환경정책에 있어서는 낙제점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정부는 그린벨트제도를 해제하는 등 가장 반환경적인 정책을 추진해 온 정부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이같은 무차별적인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을 생태적 관점으로 평가하고 결정하는 국가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세울러 가동해야 한다는 것이 환경전문가들의 목소리다. 그동안 개발의 면적부 역할을 해온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바꾸어서 구상단계부터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실질적인 제도로 개선되어야 하고 사후대

### 환경정책 없다

가 파괴되는 것을 인이하게 지켜보아서는 안된다. 지리산 양수담 건설계획과 관련하여서는 뒤늦게 '지리산 살리기 불교대책위'가 출범을 서두르고 있지만, 가야산 관동도로 공사는 해인사 스님들의 무관심으로 불구경하는 처지에 놓여 종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재경 <취재1부 기자>

목탄

## 종교NGO 네트워크 추진

### 케어코리아 허위서류 제출 서울시, 복지관 수탁체 감사

강북노인복지관 위탁체로 선정된 케어코리아가 서울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해 시가 감사에 들어갔다.(본지 273호 29면 참조)

서울시는 5일 케어코리아가 제출한 서류 가운데 자선으로 명기된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소재 건물 이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허위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케어코리아 뿐만 아니라 이번엔 위탁체로 선정된 다른 3개 법인에 대해서 자

### 반야심경 해설 강연회 열려

구미시청 불자회(회장 신영근)는 2일 시청 회의실에서 정병조 교수(동국대)를 초청해 '반야심경 해설 강연회'를 개최했다.

창립 1주년 기념으로 개최한 강연회에는 법륜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우스님(구미시암연합회장)을 비롯 12개 신행단체에서 400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했다. 김지연 기자

# 彌勒眞人 金剛道德法立 聖誕節에 즈음하여

백중(白鍾)의 천음(天音)이 온누리에 울리어 태극민족을 오천년 잠에서 깨우고 팔방으로 흩어진 단군 자손들을 찾아 미륵부처님께 귀일(歸)케 하고.

황고(黃鼓)의 지성(地聲)이 시방법계에 울리어 고해만계에 해매도는 억조중생을 일월도덕(日月道德)진리로 제민구세(濟民救世)함이라.

그리하여 미륵진인의 도량에서 금강도덕법립성탄절을 만인류에게 알리오니, 한 생각 돌리어 한 마음으로 인연을 짓기 바라는 바입니다.

◎ 후원 : (재)대도문화재단  
(사)미륵사상연구협회의회  
心天不二會(심천불이 바로 세우면 신토불이 스스로 된다)

하늘뿌리종교, 태극민족종교, 사회도덕종교  
**彌勒大道 金剛蓮華宗**

인천시 연수구 우원동 산 84의 3  
TEL (032)832-0626 FAX (032)831-8967  
http://www.miruckdaedo.or.kr  
E-mail : miruck@unitel.co.kr